

MOST	보도자료 □□□□□□□□□□		보도 시점		'05.10.27(목) 석간부터	
			자료배포일		'05.10.26	매 수
과학기술부	담	과학기술정책국 기술혁신제도과	과 장	강갑수	02)2110-3780 (010-3159-3780)	
정책홍보 담당관실			사무관	조희래	02)2110-3781 (011-1705-3962)	

R&D 활성화로 이공계 일자리 늘린다.

- 「제11회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추진방안 확정 -

□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장 : 吳 明 부총리겸 과학기술부장관, 위원 : 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 및 정보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가 10월 27일(목)에 개최될 예정이다.

<회의안건>

- ①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방안
- ② 성과활용 평가제도 추진방안
- ③ 2005 APEC 정상회의 IT산업 홍보계획
- ④ 과학기술부총리 체제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1) 첫 번째 안건인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방안」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는 과학기술분야의 일자리 비중을 제고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job creation), 일자리 연계(job placement), 그리고 취업 인프라 확충(job infra) 등 3대 부문으로 나누어, 과기부, 교육부, 산자부 등 7개 관계부처가 공동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i) (일자리 창출 부문) 전반적인 R&D 활동을 강화하여 과학기술분야와 인접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

- ① 고용창출 효과가 큰 R&D사업 추진과 국가 R&D 성과의 상용화를 조기에 추진
- ② 대학의 벤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연구인력의 양성과 활용사업을 확대
- ③ 과학기술 분야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ii) (일자리 연계 부문) 취업기회 확대와 취업능력 제고를 통해 이공계 인력의 공급과 수요간 불일치 문제를 해소

- ④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융합형 교육을 확대하고, 재교육·계속교육을 강화하여 연구원의 고용능력을 향상
- ⑤ 고경력·퇴직 연구자들을 후학양성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혁신 등의 분야에 적극 활용하고, 연구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
- ⑥ 미취업 여성과학기술인력 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연구·산업단지 내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안정적인 직업 활동을 지원

iii) (취업 인프라 확충 부문) 과학기술분야의 구인·구직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존의 취업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

- ⑦ 채용박람회, 지역별 이공계인력 중개센터 등 기존의 취업인프라를 확충하여 이공계인력의 구직·구인 활동을 원활화

iv) (기대효과) 미래 성장동력, 중소·벤처기업, 과학기술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맞춤형 인재양성과 재교육·계속교육 강화 등의 사업을 통해 과학기술분야의 일자리 비중을 OECD 평균인 25%이상으로 높여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두 번째 안건인 「성과활용 평가제도 추진방안」은 산업기술개발 사업의 성과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 종료 후 2년간 특허획득·사업화 등 개발된 기술의 성과활용 실적을 점검·평가하는 체계적인 사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i) (평가제도의 운영)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이 전담 평가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을 대상으로 R&D 종료 후 2년간 성과활용 현황을 조사·평가할 계획이며, 성과활용평가제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평가업무의 급증을 막기 위해 '06년부터 순차적으로 대상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ii) (성과활용평가시스템과 사업화지원시스템의 연계방안) 미활용 기술정보는 한국기술거래소의 한국기술은행(NTB)시스템에 등록하여 기술이전과 거래를 촉진하고, 자금부족으로 사업화에 애로를 겪는 과제는 산자부와 중기청의 사업화지원자금과 벤처캐피탈의 투자자금을 연계·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iii) (기대효과) 「R&D 성과활용 평가제도」는 R&D과제의 기획단계부터 성과지향적인 연구를 유도하고, 기술개발단계 뿐만 아니라 사업화단계까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성과활용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세 번째 안건인 「2005 APEC 정상회의 IT산업 홍보계획」은 우리나라 첨단 IT 기술을 활용하여 국가 브랜드와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Dynamic Digital Korea사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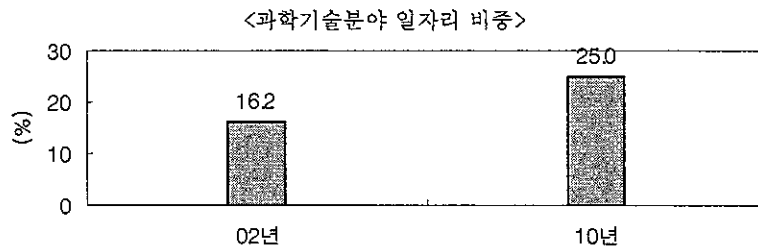
i) (IT 전시관 구성·운영) IT 강국의 국가이미지와 기업브랜드가 부각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시관을 구축·운영하고, 참가국 각료와 고위인사들의 휴식과 관람 편의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VIP 라운지를 설치하기로 했다.

- ii) (IT 조형물 및 영상물 설치·운영) APEC 정상회의장(부산 BEXCO) 주변에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조형물과 영상물을 설치·운영하여 우리나라 첨단 IT 기술을 홍보하기로 했다.
 - iii) (IT 체험서비스 시연) APEC 정상회의 주요 참가자들에게 WiBro와 위성 DMB를 시연할 수 있는 단말기를 제공하여 각종 서비스(컨텐츠)를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IT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기로 했다.
- (4) 네 번째 안건인 「과학기술부총리 체제 1년 성과와 향후 과제」는 지난 해 10월 출범한 과학기술부총리 체제 출범 1년간의 성과를 정리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i) (과학기술부총리체제 1년의 주요 성과) 과기장관회의 활성화 등으로 관계부처간에 상호 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제와 R&D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문적인 R&D 예산 조정·배분체계를 확립했다. 또한 각 부처별로 분산 시행되어 온 이공계인력 양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연계·조정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정부출연(연) 육성 등 연구 활성화와 성과 확산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는 데 주력했다.
 - ii) (종합평가) 출범 당시의 우려와 달리 새로운 행정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개발 성과가 창출되어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iii) (향후 중점 추진과제) 미래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 R&D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면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부문간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적 사고와 행태를 일반 행동규범화 하는 등 다양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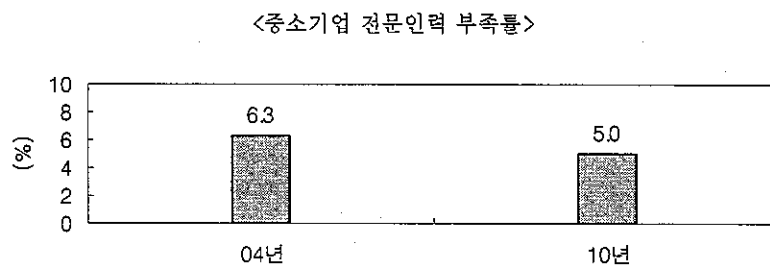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방안」 기대효과

□ '06~'10년간 과학기술분야에서 총 40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주요 부문별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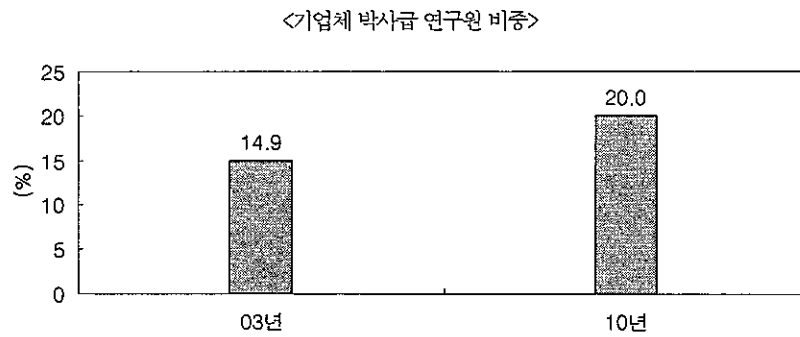
① 미래 성장동력, 중소·벤처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 분야에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비중이 16.2%('02)에서 '10년까지 OECD 평균인 25%수준으로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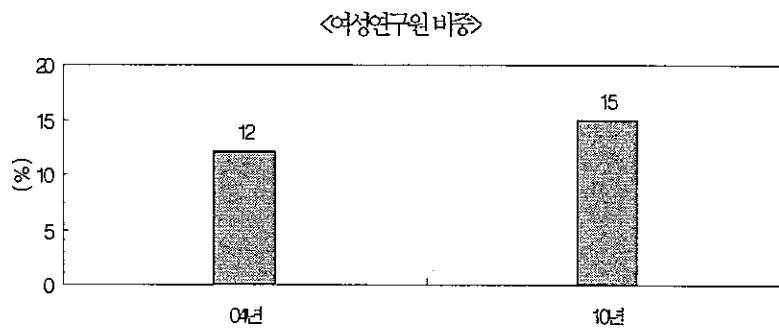
②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기술개발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여 전문인력 부족률이 6.3%('04)에서 '10년까지 5% 미만으로 유지



- ③ 맞춤형 인재양성과 재교육·계속교육 강화 등을 통해 전체 박사급 연구원 중 기업체 종사 비중이 14.9%('03)에서 '10년까지 20% 이상으로 향상



- ④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활용을 촉진하여 전체 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의 비중이 12%('04)에서 '10년에는 15% 수준 이상으로 향상



- ⑤ 채용박람회 확대하고 이공계인력의 구인·구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수요·공급 간 불일치 문제 완화

* '08년까지 광역자치단체별로 이공계인력 중개센터 설치